

지역민 위한 작은음악회  
송광종합복지관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는) 5월 20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산채 비빔밥 공양과 육개장 등 점심과 품바공연, 인기가수 공연에 이어 지역민들의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관장 도제 스님은 "종교는 서로 다름지라도 지역주민들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알았으면 해서 작은 잔치마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선 15일에는 복지관 강당에서 전남대 치과대학 의료봉사단 30여 명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치과진찰 진단 및 치료 봉사를 펼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의 9988생활체조팀(변영철 외 23명)이 5월 21일 경남 남해군 보물섬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5회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에서 21개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9988생활체조팀은 '공작공작, 유쾌상쾌통쾌'란 음악에 맞춰 활기차면서도 노년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구현해 심사위원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강미숙 강사는 "9988생활체조팀이 회원간 한마음으로 꾸준히 연습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고창군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 펴내

6월 6일, 부산 흥법사 국제포교연구원 개원 동시 발간



부산 흥법사 국제포교연구소 초대소장 박영의 교수가 5월 21일 흥법사 봉축법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도심 포교 중심도량인 흥법사가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을 펴낸다. 이에 맞춰 흥법사는 국제포교연구원을 개원한다.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은 6월 6일 법당에서 국제포교연구원 개원식 및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출간 법회를 봉행한다. 주지 심산 스님은 "우리나라 불서를 영어로 계속 번역·발간해 국제 포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 시작으로 <실용 한-영 불교용어 사전>을 6월 6일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연구원 초대원장으로는 이 사전을 직접 편찬한 박영의 총남대 영문과 교수가 취임한다. 박영의 원장은 지난 5년간 10권의 영문 법어집을 번역하면서 불교용어 4300여 개를 추려 사전에 담았다.

흥법사가 펴낸 사전은 '가나다'순이 아닌 '산문과 삼보' '전각' '불상과 보살상' '경전 및 논장' '예불 및 법회순서' '일반불교용어' 등 주제어 순으로 구성했다. 또, 시중의 불교사전에 수록된 불

리어와 산스크리트어 등의 원어는 중요단어 외에는 최대한 생략하는 대신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전 문구와 고승 법어, 동서고금의 고전의 계승 등 다양한 인용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

우리말 발음을 익히려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설명 맨 앞에 음역을 첨가한 점도 눈에 띈다. 선(禪)은 'Zen'이 아니라 'Seon'이라 표기

하고, 스님은 'Monk'나 'Priest'가 아닌 'Sunim(Snim)'이라고 부르도록 한 것.

박 원장은 "이 사전은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의 재가불자 및 일반인을 위한 것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불교개론 또는 입문 교재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이에 이 사전의 이름 앞에 '실용'을 붙이고, '사전'도 사전(辭

典)이 아닌 '事典'(사전)이란 용어를 붙였다"고 설명했다. 박영의 원장이 처음부터 1000페이지 가량의 방대한 사전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6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외국인에게 템플스테이를 안내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서를 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시작하게 됐다.

박 원장은 "처음에는 50~60페이지의 소형 안내책자를 제작하려고 시작한 일이 5년 여 기간을 거치면서 일반인과 외국인, 불자들을 위한 사전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 박영의 원장은 "합리성을 선호하는 서양인들에게 포교하려면 간혹는 뜻지않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부처님 공부를 함에 있어 어려운 가르침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이심전심(心傳心)의 감동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흥법사는 사전에 등재된 콘텐츠를 차후 인터넷 상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사경은 무념무상 이르러야”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 김시운 회장



한국전통예술학회 김시운 회장(가운데)과 김 회장이 청주BBS에 기증한 작품.

최근 청주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는 붓촉을 기념한 불화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에서는 전시장 한가운데 길게 드리운 <묘법연화경> 사경 작품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하나로 모았다. 가로 16m, 세로 34m의 규모로 감지에 깨알 같이 금으로 쓴 사경 작품을 만든 이는 초암 김시운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 회장이다. 김시운 회장은 현재 한국전통사경예술학회와 한국전통사경연구실을 운영하며 2008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최우수상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에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지냈다. 김 회장은 "1984년 가을 무렵, 꿈에 흰 복장을 한 노인이 흰가 한 아름 안고오더니 '너는 이것을 받아 지니거라'고 말했다. 다음날 속리산 문장대 등산길에서 한 스님을 만나 작은 글씨로 스님이 손수 먹은 갈아 사경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전해 받은 것이 사경을 시작하게 된 인연"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시운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강경>을 전했던 스님도 '김 회장에 책을 전해 주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

김 회장은 스님이 전한 <금강경> 필사본을 모본으로 사경 수행을 시작했다. 김시운 회장은 금, 은, 황동과 물에 푼 아교에 섞어 글씨를 쓰는데 변색을 막는 방법을 몰라 3년 여를 고심하기도 했다.

"사경은 오직 수행에서 오는 무념무상의 마음이 점록돼 삼매경에 이르고 부지불식간에 황홀경이 되어 끝없는 정진으로 사경에 입해야 합니다."

한편, 김시운 회장은 11월 24~30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 전시실에서 개인 전시회를 앞두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김 회장이 <묘법연화경> 전7권을 감지에 손글씨로 제작한 작품과 사경으로 만든 병풍과 액자, 권자본, 절첩본 및 선장본의 전통사경을 집록한 작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 회장은 "11월 전시회를 마치고 무형문화재 등재에 도전하겠다. 또, 후학을 위해 그동안 연구하고 습득한 기법 등을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법정 스님 선묵전 개최

보성 대원사, 지인들에 보낸 편지·그림

무소유의 삶으로 큰 교훈을 남긴 법정 스님의 글과 그림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은 6월 20일까지 대원사 티벳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법정 스님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그림 등을 모아 '법정스님 선묵전(禪墨展)'을 개최한 다.

법정 스님 특별전에는 스님에게 글과 그림을 받았던 현목 스님(송광사), 이해인 수녀, 대도행보살(서울, 대자화보살(광주), 보덕행보살(부산), 무량광보살(화순) 등이 보관중인 30여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작품에는 법정 스님이 기사로서 신도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직접 전했던 계첩, 1974년 현장 스님에게 세해 인사를 전했던 짧은 글, 이해인 수녀에게 쓴타니파라 경

구를 적어 보낸 글들로 등이다. 작품 곳곳에는 스님이 자신의 글과 그림을 '붓장난'이라고 말하거나, 자연에서 느낀 솔직한 심정을 간략하게 적은 모습도 눈길을 끈다.

특히 스님의 혼이 담긴 필체와 그림은 지금까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던 정신적인 가르침과 달리 이웃과 정을 나누는 스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스님의 필체에 담긴 매력과 가치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법정 스님의 생전이라면 큰 호응을 받을 일이지만, 율곡은 삶과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었던 스님의 마음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명 대사 호국광장 완공

부불련, 어린이대공원서 기념법회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완공기념법회를 마치고 부산 불교연합회장 정영 스님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광장이 조성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영, 범어사 주지)는 5월 2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 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호국광장 완공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영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호국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계는 호국광장을 불교의 호국정신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옥천 대성사, 트레킹으로 사랑 맺는다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6월 20일 오전 10시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 회원의 날'을 개최한다. 행사는 대성사가 BBS청주불교 방송이 진행 중인 충북산성 트레킹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남선녀 40명이 보는 삼년 산성, 법주사 참배 등을 통해 사랑을 맺게된다. 참가비 무료. 선착순 40명(선남 선녀 각20명)에 한한다. (042)223-8214

혜철 충청지사장

Advertisement for 'Bumryundae (Yunjangdae)' featuring a large green pagoda. Text includes: '대한민국 상감청자 범륜대(윤장대)', '범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윤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법륜대(윤장대) 우리 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범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정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범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